보 도 반 박

금융위원회			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7.22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전은주 (02-2100-1730)	담 당 자	고선영 사무관 (02-2100-1741)

제 목 :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관련하여,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[이데일리 7.2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

1. 기사내용

□ 이데일리는 7.22일 「"코인사고, 은행 책임 안묻겠다"... 한발 물러선 금융위」 제하 기사에서

○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**은행의 면책**에 대해 **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**는 취지로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하여, **은행의 면책**에 대한 **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**

○ **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**가 발생하였을 경우, 은행이 **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**하였다는 사유만으로 **제재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** 것으로 판단되나,

○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등 **위법행위**에 대하여는 **구체적인 정황 등을** 감안하여 **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**하게 될 것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